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94 직분자 연속기도회 실시

2월 23일(수) 오전 11시부터 시작

교회설립 40주년을 지낸 우리 충헌교회는 94년도를 맞이하여 주후 20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를 실감하고 교회부흥과 더불어 천국일꾼을 양성하고 민족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실시한다.

이번 기도회는 원로목사와 사모, 당회장목사와 사모로부터 시작해서 제1교구부터 차례로 기도하게 된다. 교구에서는 자체 기도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한 교구가 5-7일 정도 기도할 계획이다.

이 연속기도회는 24시간 연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외에도 교회성숙과 부흥,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된다는 데에 더 의미가 있기에 직분자들은 가능한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속기도회를 하면서 연속기도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각 교구별로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실시일 : 1994년 2월 23일 11:00

· 대 상 : 94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권할, 단 권사는 현재 실시중인 권사24시간

기도회로 대체)

· 장 소 : 교회내 연속기도실(나사렛홀 입구)

· 방 법 : 개인당 1시간(2명 함께 기도할 때는 2시간)

✦ 24시간 기도제목 ✦

1.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소서.
3. 교역자, 장로, 모든 교회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4.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5. 북녘 땅 내 동족들이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시며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6. 세계선교에 우리 모두 힘을 다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금년에 2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7.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일꾼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8. 구역모임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기도가 응답됨으로 살아 있는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하소서.
9. 새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시며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10. 제2교육관 공사가 속히 시작될 수 있게 하시며 교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등 각 부서가 배가되게 하소서.

94년도 교회요람을 위한

주소 확인하도록

1994년도 교회요람에 게재되는 직분자 주소록에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과 지난해 주소록에서 착오가 있는 사람들은 교구 구역자나 교구 간사에게 변동사항을 알려 주며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고등부 1부 예배 신설

오전 7시에, 2부는 오전 8시 50분

교회학교 고등부는 2월 20일 주일부터 1부 예배를 신설하여 2부제 예배를 드린다.

현재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650여명선이므로 비좁은 탓도 있지만 예배 후 분반공부 시간이 여의치 않아 늘 공부장소를 옮겨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된다.

1부 예배는 베다니홀에서 오전 7시에 시작하고 끝난 후 분반공부를 하여 오전 8시 40분까지는 다 마치게 된다.

새가족 환영회 다음 주일에

교구모임 시간이나 기타 모임을 통해

교구위원회는 새가족위원회와 협력하여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을 새가족 환영주일로 정하고 교구모임 시간이나 기타 특별모임을 통하여 환영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다음 주일(27일)에 실시되는 교구별 새가족환영회는 93년 12월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등록한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새가족위원회는 교구별 새가족 명단과 환영회 안내문을 금일 각 교구 간사에게 배부하며, 새가족들에게 전달할 기념품은 다음 주일 새가족위원회 행정부 사무실(교육국 옆)에서 참석수만큼 수령하면 된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새가족환영회에 각 교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정착되도록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겨울성경학교, 23-25일에

교회학교 영아부가 2월 24, 25일, 유치부 및 초등 1-6부가 23일(수)-25(금)까지 겨울성경학교가 열린다.

원래 계획은 21-23일이었으나 국민학교의 봄방학 관계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한편 금주에는 중등3부와 예비다부가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충헌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를 갖게 된다.

각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 개요

구분	주제	장소	실시일	강사
영아부	지혜로운 사람	영아부실	2.24-25	정연희
유치부	믿음의 어린이	교205, 새가정부실	2.23-25	김정자
초등1부	믿음으로 자라자	교 212	2.23-25	김필수
초등2부	구원받은 어린이	교 314, 301	2.23-25	정갑신
초등3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는 어린이	교 307	2.23-25	이인우
초등4부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교 414	2.23-25	장상기
초등5부	하늘나라 가정이 되자	교 407	2.23-25	성봉환, 김희수
초등6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교 507	2.23-25	한용관
청년1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충헌기도원	2.27-3.1	신성중, 현성민, 윤삼중, 장봉생
사랑부	꿈꾸는 어린이	사랑부실	3.1	임성환
예비다부(학)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충헌기도원	2.21-23	김성윤, 이준우

교회학교 교사들은
식당 이용시 명찰을 달아서 표시하기를

시간없는 교사들을 위한 우선권에 서로 이해와 양보를

2월 정기 당회에서는 교회내에서의 취사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금지토록 하였으며 주일날 교회 외부로부터 상거래에 의한 음식물을 들여오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난 주일부터 교회내 각 부서에서의 취사 및 단체급식에 의한 식사가 금지되었고 인해 식당이 더욱 붐비게 되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온 성도들이 시간에 쫓기는 교사들을 이해하며 양보하기를 바라며 교사들을 위한 배식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명찰을 달아 교사임을 표시하여 식당 봉사자와 일반 성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교사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고 협조하며 좋은 의미에서 결정한 일들이 잘 자리잡아 나가야 될 것이다.

사 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요엘서를 인용한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구절은 ‘주의 날’ 혹은 ‘여호와와 의 날’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와 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와 의 날, 주의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5,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단 9:27, 11:31, 12:11)에 보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의 시작이다’라는 다니엘의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인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가 바로 주의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175년에서부터 164년 사이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정신나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사용과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핍박을 했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전예배가 그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마침내 헬라화, 세속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몰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페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때에 110만명이 죽었고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1절에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을 겪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말세지말에 일어나게 될 대환난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2. 주의 날이 이를 때 해야 할 일

본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안에 넣은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며 긴박한 사건을 앞에 둔 예수님의 특별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1) 산으로 도망할지어다(16절)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역사가 흘리간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그곳에 가서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산다’라고 믿었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디도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두들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산에는 많은 은산처가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한 기독교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환난날에 피할 큰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입니다.

(2)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17절)

유대의 지붕은 우리 나라의 슬라브 지붕과 비슷하게 평평

충현강단



멸망에 대한 예언

(마 24:15-28)



신 성 종

<목사·당회장>

합니다. 보통 때는 지붕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물을 고이게 해서 그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으로 연락을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전도할 때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집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하기 위해서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상용 식량을 챙기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환난은 불난 것보다도 더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라(18절)

밭에 있는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과 속옷은 우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일할 때에 입은 옷을 그들은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겉옷은 잠잘 때에 깔개도 하고 덮기도 하는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밭에서 속옷처럼 일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겉옷을 가지러 가야지’ 하고 돌아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겉옷을 가지러 후 집에 들뜨고 하지 말고 그대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환난의 다급성을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4)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첫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19절)

임신부들은 빨리 도망을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린애들을 어른들이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첫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 노약자, 환자 특히 임신부들입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겨울철에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이 말씀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될 때에는 뱀같이 지혜롭게 빨리 피하여 도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핍박이나 위협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자칫 하면 그것에 대항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물론 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대항하려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회를 보아서 피해야 하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때를 감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가지각색의 흑색 루머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아난계 아니라 전쟁때에는 그 루머가 더 심합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더욱 더 심합니다. 바로 이런 루머가 생길 때에 그 루머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니까 병을 잘 고치더라 하면서 함부로 따라 다니면 안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좀 일어난다고 그것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그 당시의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독수리 깃발을 들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로마의 병정들이 포위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이 죽은 사회, 냄새나는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수리에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독수리(eagle)와 콘돌(vulture)이라고 불리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데 콘돌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들은 반드시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콘돌이라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왔다갔다하면 거기엔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하다, 즉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것은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사형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종말을 알리는 시체주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짐, 철저한 기쁨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 등과 기쁨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수양회에 다녀온 후에 ◆

누가 우리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이토록 기도해주며 말씀으로 키워주는가

이 지 형

(초등5부 사랑5반)



4학년에서 5학년을 올라와 보니 5학년때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기며 생활하고픈 마음이 들었는데 매마침 임역원수련회가 있게 되어 각오와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버스에 올라탔다. 시끌벅적한 버스 안에서 빨리 기도원에 도착하고 싶은 어린마음들……

우리는 기도원에 도착해 도착예배를 드렸다. 찬송의 한 마디 한 마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고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초등5부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곱게 키우기 위해 열면 설교와 따미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다. 누가 우리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이토록 기도해 주며 말씀으로 키워 주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를 떠나 기도원의 다음날 아침은 차가운 공기중에 하나님의 깊은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개미처럼 지혜롭자'는 임역원수련회 주제로 부흥회 때 성봉환 목사님께서 개미의 지혜들에 대해 설교해 주셨다. 우리 인간들은 감독자가 있어야 하지만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셨다.

이제 1994년도 개미처럼 누가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더욱 지혜롭고 알차게 승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 수양회에 다녀온 후에 ◆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최 성 현

(장로, 대학부 부장)



1994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충천기도원에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속에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여러 교회학교에서의 성경학교와 최근의 4년여 동안 고등부에서 실시해온 수련회를 통하여 경험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대학부 수련회는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며 대학부 지체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될까, 또 수련회 중 각종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수련회에 참여하였다. 교사들과의 역할 분담이 있으리란 나의 생각

과는 달리 처음부터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일정을 계획하였고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다. 물론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지도 감독하려고 힘쓴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동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43장)라는 주제를 가지고 350여명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눈동자와 뛰는 심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이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겠구나, 무엇이든 터져주나 하는 기대와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격을 맛볼 수 있었다.

G.B.S(그룹성경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눔의 시간엔 각자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서로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고, 마주보기를 통해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알기 원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공동체 시간에서 나타난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에는 순수함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받은 감동대로 손을 들기도 하며 일어나기도 하며 어깨동무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나를 흥분 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이었다. 이 찬양의 모습이 내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나를 감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여저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마음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경회, 하나님의 통치권에 머리 숙이고자 하는 순종과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사대의 젊은이들로 인해 마음이파랬는지 자문해 본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린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이 나라를 맡길만하며 분명 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부흥성장해 갈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도와야 할 것이며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지도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이 기회에 대학부를 조금 소개하고자 한다.

94년 2월 6일 현재 509명이 출석했으며 임원들과 스태프, 조장들의 헌신이 돋보인다. NMC, 봉공방, 꿈지기, 돌배개, 편집부, 시심나를 비롯한 많은 소모임들이 있으며 풀무불에서는 재수생을 격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 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각 학교별로 익수스 모임이 있고 예수제자훈련을 통해 일꾼들을 키워내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회원들이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물론 교회에 매무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교회 어른들과 부모님들의 염려도 있지만 이들이 젊은이들의 황금시간인 토요일 오후와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런 일인가.

이들이 세상의 문화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젊은이들에게 때문에 실수도 한다. 희곡이 앞서는 때도 있다. 우레가 그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이해하며 포용할 때 대학부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장을 통해 미래를 기대해 보자.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징검다리 ◆

떠오르는 얼굴들

김 용 기

(목사, 10교구, 경로대학 지도)



우리 교구를 주관에서 섬겨온지 어언 3년이 됐다. 교구를 섬길수록 우리 성도들의 깊은 신앙 속에 오히려 부족한 것이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심방하면서 감동적인 일들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몇자 적어 본다.

첫째는 수많은 교구 식구들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부 나를 위해 웃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부 교역자가 심방가면 화사히 웃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전형적인 우리 충천교회의 성도들의 얼굴들이었다. 우리 원로목사님의 가식이 없고 순수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그 모습을 수십년 동안 닮아온 바로 그 얼굴들! 그런데 그 얼굴들 중에는 가까이서 서울권 내의 성도들도 있지만 그 얼굴들의 상당수는 멀리는 지방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양평, 파주, …). 심방하면서 자주 패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 충천교회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맞을 수 없는 것은 J 성도님의 투병생활이다. 그는 본래 시골에 계 사다가 우리교회 나오시는 따님 되시는 집사님의 극진한 간호 속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 병명은 암이었다. 그 당시 신앙이 전혀 없던 성도님은 따님의 눈물겨운 전도와 교구와 구역 식구들의 기도 속에 신앙을 고백하며 평생세대를 받으셨다. 그는 날마다 물려오는 극심한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목사의 심방을 기뻐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셨다. 그리고 따님이 적어준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고통을 이겨나가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전통적인 유교관습에서 사셨던 그는 자녀들에게 모든 장례절차를 기독교식으로 할 것을 유언하셨다. 구역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장지(순천)를 두번이나 오르내리면서 장례를 집행했다. 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은 장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변화를 목격한 수많은 동네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을 감동시켰다(전부 우리교회 출석). 요한복음의 말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이었던 것이다. 또 한 이를 애무했던 분은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 독자에게서 온 편지 ◆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출판부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문서(신문, 전도용 잡지)로서 전도활동에 큰 보탬을 얻음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10월경 우연히 서울에 올라갔다가 충청교회의 주보와 <주간중헌>을 보고 새로운 각오와 도전을 받고 신앙의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예배서와 신문을 3개월째 받고 있는데 성경적, 신학적 생활에 큰 도움을 얻고 있기에 감사의 글을 보냅니다. 주보의 '성경통신강좌'란은 성경의 친밀함을 더욱 느끼게 해주어 매달 보내주시는 주보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수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직장 사정상 주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문서선교헌금을 꼭 드려서 문서선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건이 허락이 되는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받고자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곳곳에서의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소식이 끝없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헌신과 선교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0일(주일) 이천 성결교회 부흥회 인도
23일(수) 한사랑 분당교회 부흥회 설교
· 신성중 목사님 :
25일(금) 국회의원 모임 특강
2.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복된 땅에도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소서.
3. 24시간 기도회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4. 구역의 모임이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게 하소서.
5. 교회학교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소서.



홍콩 / 김은태 선교사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나,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선교의 사령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년 8개월간의 한인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중국인을 향한 선교를 향해 새출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신 목사님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 교회가 자립 전부터 선교사 한 가정을 단독으로 지원해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홍콩에서 좋은 교회로 뿌리를 내리고, 새로 오신 윤용규 목사님을 모시고 더욱 더 알찬 부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져보는 조용하고 여유있는 시간입니다. 이사 후에 짐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장막에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지도해 주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며, 편지로 저의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으면 결코 제가 이마만큼도 달려오지 못했으리라는 깨달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달려왔다고 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에 밀려온 것 같기도 합니다.

현지는 구정을 맞아 거의 모든 가게와 공장, 학교, 회사는 문을 닫고 적게는 한 주일 이상 두 주일의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새로 이사한 곳이 上水라는 곳인데 중국 국경인 羅湖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이며 홍콩 기차역의 가장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교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을 찾아 선물을 준비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남은 저 땅 북한의 형제들을 기쁨으로 주 안에서 만날 날이 가까워 옴을 느낍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홍콩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잘 맞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심한 손길을 느낍니다. 집을 구하는 일, 아이들 학교를 옮겨 새 학교를 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인 경우는 99%가 그렇습니다. 상당한 돈이 소개비로 나갑니다. 저의 경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주 희귀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찾던 그 장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학비가 거의 없는 정부 학교로서, 기독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쉽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새 학교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우

선교지에서 온 소식



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교 입학이 결정된 후 알아보니,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라 학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밖의 여러 가지 일 또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일점일획도 변치 않으리라 하신 말씀은 오늘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에 늘 굳게 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나,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금년 94년은 광둥어(홍콩 및 중국의 광둥지방어) 준비에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문대학에서 하루 3시간씩 공부하며 집에서 복습, 연습 하느라 힘쓰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및 공원전도는 이사 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자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국에 가서 조선족과 북한 형제들을 위한 주일 예배 설교를 녹음하고 책임자와 함께 앞으로 이 방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한국어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양육하는 모임이 중국내에 다섯 곳이나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 일은 중국내 한국 선교사들과 긴밀히 연락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하여 분부하시는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직하는바 중국인을 통한 중국 선교 및 아시아 선교를 위해 중국인 지도자와 협력하며, 저 자신은 홍콩과 중국의 젊은 일꾼들을 제자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과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50배, 인구는 30배가 되는 中國 大陸 宣教,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 선교한다 해도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미미합니다. 수많은 중국내의 일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으며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중국이 소련과 같이 개방만 된다면 천막만 치고 신학훈련센터를 열어도 구름떼같이 몰려 올 것입니다. 한국이 1,000만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많은 신학교와 선교훈련단체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현재 약 7,000만 중국신자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지도자 양성기관이 필요하며, 그들을 지도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의 중국 민족, 세계에 가장 널리 흩어진 중국인, 하나님은 반드시 중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들을 깨우고 함께 섬겨 마지막 시대에 세계선교를 주도할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 후보생이 중국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어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언어에 진보가 탁월하기를 소원합니다.
2. 경건훈련에 더욱 승리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더 힘있는 말씀 전파자가 되길 바랍니다.
3.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4. 홍콩과 중국의 젊은 일꾼들과 만남과 동역이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귀한 선교사역에 동역자 그리고 형제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피차 기도할 때 더욱 깊이 생각나게 하시길 구합니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香港 上水에서 94년 陰曆 正月 초 사흘날에
김은태 선교사 드림